

1994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소고

1994년도 한국고분자학회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가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천년고도를 자랑하는 진주의 경상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대한민국 과학상 수상자인 이해방박사와 Massachusetts 대학의 Stein 교수의 초청특별강연에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는 199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및 고분자학회를 이끌어갈 학회 회장단(회장: 김정엽박사, 수석부회장: 이서봉박사, 부회장: 김연식부사장, 진정일교수, 조원제교수, 전무이사: 강두환교수, 총무이사: 조원호교수) 보고가 있었다.

이번 추계연구논문발표회에서는 국내의 약 6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2편의 초청특별강연, 2편의 학회상수상기념강연, 3편의 산학연협동강연, 10편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예년에 비해 논문발표 총수에서 많은 증가를 보인 일반연구논문발표중 구두발표(147편)가 7개 발표회장에서, 포스터발표(112편)는 1, 2부로 나누어 화창한 가을 오후의 햇볕속에서 야외발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주도로 국내 대학 고분자교육에 관한 심포지움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경북대를 포함한 국내 6개 대학에서 참여하였으며, 학회차원에서 고분자교육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금요일 간담회에는 150여명이 참석하여 회원들간의 친목 및 학문토론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한편, 이번 학회가 개최된 경상대학교는 주위환경이 아름답고 멀지 않은 곳에 진주성, 축석루, 박물관, 남강 등 역사적 유물들이 있어 많은 참석자들에게 학문적인 소득 이외에 역사적 향내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끝으로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지난 여름부터 준비해 주신 경상대 고분자공학과 박영욱교수님을 비롯한 학과 모든 교수님들, 또한 많은 발표회장 및 발표수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사전준비로 발표진행을 도와주고 밤을 새워가며 물품들을 지켜주는 등 애를 써준 고분자공학과 대학원생, 학부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획간사 최형진〉

